

디스플레이 산업동향

LCD

◆ 반도체 · LCD 값 동반상승

일본 지진으로 인한 반도체 · 장비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일부 부품 · 소재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세계 반도체 · LCD 가격이 2분기부터 동반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6일 관련 업계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패널 기업들이 일본 지진으로 인해 특정 부품과 소재 수급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던 패널 가격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역시 실리콘웨이퍼 공급 부족으로 컴퓨터용 메모리 등의 공급이 줄어드는 대신 가격 하락폭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LCD 패널의 경우 2분기를 기점으로 패널 가격이 본격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일본 지진으로 인해 국내 기업보다는 대만 패널기업들이 부품 · 소재 조달에 더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패널 기업들의 가동률 제한과 이로 인한 패널가격 상승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2011.4.6]

◆ TV 시장, 사업 모델 다양화 된다

LCD 패널과 TV 업체들이 전통적인 TV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영역에 활발히 진출함으로써 TV 시장 구도에 큰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

왔다. TV 업체들이 LCD 모듈 제조 영역에 진출하고, 반대로 패널 업체들은 TV 사업에 적극 나섬으로써 이들의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3월 9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는 올해 BMS와 셀 비즈니스 및 아웃소싱 모델의 부상으로 TV 사업 구도 변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MS(백라이트유닛+모듈+시스템)’ 모델은 셀(Cell), 백라이트, 모듈, TV 업체로 구분되던 전통적인 TV 제조 단계를 단순화한 모델이다. 간단하게는 TV 세트 업체들이 패널 업체들의 영역이던 백라이트와 부품 조립 및 모듈 제조를 수행하는 모델이다. 이에 따라 TV 제조 단계는 패널과 세트 업체로 이분화된다. 특히 세계 1, 2위 TV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BMS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LCD 업체들은 가장 기초적인 패널인 셀(Cell)을 공급하는 것으로 영역이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세트 업체들의 움직임에 대응해 LCD 업체들은 아웃소싱 사업 진출로 활로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LCD TV 아웃소싱 시장 규모는 사상 처음 1억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70%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험 차원에 머물던 TV 업체들의 BMS 모델 도입이 올해부터 더욱 본격화하고 아웃소싱 시장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며 “올해가 TV사업 패러다임 변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전자신문, 2011.3.10]